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엄친딸,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

2016년 율리아 피셔의 내한 리사이틀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였다. 영어가 그리 능숙하지는 않아 의미 전달이 불분명했었을 것이다. 그녀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다거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없이 "Strange Question" 딱 두 단어로 답변을 끝냈다. 다른 질문에서도 그녀의 연주처럼 거창한 형용사 없이 간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영상과 음반 속 연주로만 마주했던 율리아 피셔의 차가운 이미지가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이는 엄친딸을 바라보는 시샘일지도 모르겠다. 1983년생인 율리아 피셔는 3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9세에 아나 추마첸코의 제자가 됐고, 1995년 메뉴인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예사-페카 살로넨 등 세계적인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함께 솔로리스트로 승승장구 한 것은 예견된 성공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프로 피아니스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피아노도 잘 친다. 2008년에는 마티아스 핀처가 지휘하는 영 도이치 필하모닉과 1부에는 피아니스트로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2부에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생상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기도 했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두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완벽했고, '왜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아노 협주곡도 훌륭했다. 하나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데, 율리아 피셔는 두 악기 모두 최고 수준으로 소화해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동경과 함께 시기와 질투도 포함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것은 지난 3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협연자로 함께 내한했을 때였다.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와 함께 1부에서 그녀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역시나 호연이었다. 그리고 교향곡이 연주되는 2부, 제1바이올린 끝자리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율리아 피셔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다시 무대에 오른 것이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솔로리스트가 누군지 관심조차 가지 않는 끝자리에 앉아 열심히 교향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는 미워할 수 없는 엄친딸이라고 생각했다.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다하지 않다니. 그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음악적 호기심이 풍부한 연주자였다. 그 곳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수차례 계속되는 커튼콜에도 흐트러짐 없이 인사를 하는 율리아 피셔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닌, 사랑스러운 아티스트였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율리아 피셔가 과연 이번 연주에서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얼굴을 드러낼지는 그녀의 음악과 함께 곁들여지는 기대감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미하엘 잔데를링. 같은 프로그램, 협연자와 함께 문화궁전(KULTURPLAST)에서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리는 상임지휘자로서 마지막 상주 연주홀에서의 연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매진으로 드레스덴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7월 7일 아트센터 인천에서의 연주가 미하엘 잔데를링의 상임지휘자로서의 진짜 피날레 연주이다. 그동안 미하엘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 내한해 모두 같은 곳(예술의전당)에서 연주를 했다. 8년 동안 함께 한 미하엘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이 아트센터 인천이라서 다행이다. 이들의 상주홀인 문화궁전은 빈야드 스타일인데, 아트센터인천은 빈야드와 슈박스 스타일의 장점이 결합된 연주홀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그들의 안방처럼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최적의 연주홀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아쉬우면서도, 최상의 사운드와 호흡이 기대되는, 어찌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최적의 장소에서 펼쳐질 이들의 마지막 연주가 기다려진다.

글 | 정소연 (월간 스트라드 수석 기자)